

종합·해설

“새해에도 장외 투쟁 계속할 것” “대북 강경책 재검토” VS “조정 타당치 않다”

대구 집회 순학규 “남북 긴장 완화 당 대표단 미·중·러 파견”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맞서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새해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권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반감이 민심 전반에 폭넓게 퍼져 있다는 판단 아래 원내외 병행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장외 투쟁은 당내 의견으로 피로감을 누적시키는데다 당내 동력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과연 원내외 병행투쟁을 통해 민심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22일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장외집회를 잇달아 열고 대외 공세를 계속했다.

우선,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을 문제 삼아 “(이명박 정부)가 민생 문제에 무능하다”고 질타했으며 순학규 대표는 최고위 직후, 경북 안동의 구제역 발생 현장을 방문하고 축산농민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또한, 민주당은 연평도 사격훈련 강행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됐다고 강조하면서 “아무리 안보 정국을 만들어도 국민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순학규 대표), “정부는 잘하는 게 성공한 기업일 뿐이지”(정동영 최고위원)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정대로 오는 28일까지 전국 순회 집회를 계속하고 새해에도 “더 넓고 더 낮게”라는 콘셉트에 따라 대외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백신접종은 최후 수단으로서 찬반 의견이 많고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고,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22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순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강압수사로 정치적 보복을 하는데 검찰이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등 대외 총공세를 펼쳤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정대로 오는 28일까지 전국 순회 집회를 계속하고 새해에도 “더 넓고 더 낮게”라는 콘셉트에 따라 대외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백신접종은 최후 수단으로서 찬반 의견이 많고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고,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은 말”이라며 “우리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순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 “남북 내지는 관계국과의 적극적 대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 남북평화특위 차원에서 대표단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까지 파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거리 정치를 관두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 “안보 정국으로 국민생명 운동을 하는 데 대해 불안전한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나라당이 28일 지나면 ‘슬그머니 들어오겠지’라고 하는 것

은 어렵지 않은 말”이라며 “우리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순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 “남북 내지는 관계국과의 적극적 대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 남북평화특위 차원에서 대표단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까지 파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거리 정치를 관두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 “안보 정국으로 국민생명 운동을 하는 데 대해 불안전한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나라당이 28일 지나면 ‘슬그머니 들어오겠지’라고 하는 것

고, 절차를 거쳐 링(Ring) 백신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링 백신’은 구제역 발생농장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특히 구제역이 외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경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산농가가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할 경우 현재는 법무부가 수의과학 검역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항에서 원천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법무부 입국정보 시스템에 축산농가 등이 등록돼 사전에 입국검사 전 소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녁’에 출연, “그동안 직권상정이 일방적 강행처리의 수단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 지도부 대북정책 놓고 설전

한나라당 일부 지도부가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홍사덕 의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평도 사태는 대통령 이하 강력한 지도력에 힘입어 잘 마무리됐고, 종합적인 평가는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증권시장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모두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대북관계, 대북정책을 선도하는 조지를 취하면 어떻겠느냐”며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대북정책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은 “증장기적으로는 북한 리스크를 현명하게 관리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라며 “우리가 서로 남 탓, 전 정권 탓, 이 정권 탓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하나로 그때그때의 장점을 모아 새로운 대북전략을 만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한걸음 나아가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현 대북정책이 북한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정책인데 전면 검토가 필요하며 강경 일변도의 대북·외교·안보라인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윤성 의원은 “증장기적으로 대북관계를 조정하자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 상황이 그렇게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며, (대북정책 조정은) 타당치 않다”

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생각나는 대로... 대북관계 긴장완화를 위해 이게 가능하냐”고 말하자, 정 최고위원은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다”고 맞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또 이경재 의원은 “단호한 의지를 보인 이번 훈련으로 북한은 좀더 조심하고 당분간 평화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강력한 군사대결이 평화 유지의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며 “평화·대화’는 인기있는 발언인데, 대화로 가면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로 가는지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대표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이 정도로 멈추고 우리 한나라당이 안보특위가 구성돼 있다. 김장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특위가 구성돼 있어 한나라당이 특위 구성으로 적절한 남북대화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둘러 논쟁을 종료시켰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정대로 오는 28일까지 전국 순회 집회를 계속하고 새해에도 “더 넓고 더 낮게”라는 콘셉트에 따라 대외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백신접종은 최후 수단으로서 찬반 의견이 많고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고,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은 말”이라며 “우리는 국민을 위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순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 “남북 내지는 관계국과의 적극적 대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 남북평화특위 차원에서 대표단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까지 파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 대표는 “거리 정치를 관두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대해 “안보 정국으로 국민생명 운동을 하는 데 대해 불안전한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나라당이 28일 지나면 ‘슬그머니 들어오겠지’라고 하는 것

고, 절차를 거쳐 링(Ring) 백신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링 백신’은 구제역 발생농장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특히 구제역이 외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경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산농가가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할 경우 현재는 법무부가 수의과학 검역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항에서 원천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법무부 입국정보 시스템에 축산농가 등이 등록돼 사전에 입국검사 전 소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녁’에 출연, “그동안 직권상정이 일방적 강행처리의 수단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 불모지 호남 개혁에 노력”

정운천 지명직 최고위원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공식 임명된 정운천 전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22일 당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정치권에 데뷔했다.

호남 뉴 최고위원으로 이를 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이 의결된 정운천 전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이날 임명장을 받고 “한나라당의 불모지인 호남 개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장관에서 물러나 지난 6·2 지방선거 전북지사 후보로 출마, 18.2%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그는 회의 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장벽을 극복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석패율 제도를 지역 구도 타파의 방안으로 제안하며 “기존 비례대표 54명 중 10명 정도 만이라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호남에서 5명 정도, 영남에서 8~9명의 (상대지역 출신 의원)이 나온

다면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다른 정당도 손해 볼 일이 없다”며 “지역 주의 타파를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안상수 대표는 “당과 지역을 잇는 다리가 돼 전라 민심을 당에 가깝게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로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호남 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막판 정전 장관으로 ‘유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 농식품위, 구제역 백신접종 찬반 논란

“청정국 포기 신중을” “전국 확산 방지 검토”

국회 농림수산물식품위의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구제역 발생 직후 정부의 초동대처가 미흡했음을 질타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후 대처와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농식품위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축산업 종사자가 가족 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할 때 신고와 소독을 하지 않으면 처벌 받도록 하는 가족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기로

한 예방백신 접종이 타당하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백신접종은 지난 2000년 구제역 당시 단 한 차례 사용했던 처방으로 예방접종 중단 뒤 1년이 지나야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회복될 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세계 각국이 꺼리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은 “백신접종은 최후 수단으로서 찬반 의견이 많고 실효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고,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백신접종은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국 축산농가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반면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지난 2000년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사태가 종식됐다”며 “현재 구제역이 검출될 수 없이 퍼지고 있는 만큼 백신접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법무부 입국정보 시스템에 축산농가 등이 등록돼 사전에 입국검사 전 소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녁’에 출연, “그동안 직권상정이 일방적 강행처리의 수단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절차를 거쳐 링(Ring) 백신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링 백신’은 구제역 발생농장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특히 구제역이 외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경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축산농가가 해외에 나갔다가 입국할 경우 현재는 법무부가 수의과학 검역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항에서 원천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법무부 입국정보 시스템에 축산농가 등이 등록돼 사전에 입국검사 전 소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문제를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녁’에 출연, “그동안 직권상정이 일방적 강행처리의 수단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직권상정 요건 강화·필리버스터 도입해야”

홍정욱 의원 법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22일 직권상정 요건 강화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행방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녁’에 출연, “그동안 직권상정이 일방적 강행처리의 수단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북대처라는 특수한 현실이 있고, 이것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국가비상사태나 국가재난의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위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원위원회 심사 배제 요청(discharge petition)’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심사 배제를 요청하기 위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3분의 2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소수당은 법안상정을 보장하고, 다수당은 재적 5분의 1 이상 요구에 조정절차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이후 여야의 무관심으로 방치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식사전 독소무 1봉씩!

“배변이 힘들고 속이 더부룩하고 까스가 차고 소화가 안된다”

삼성제약 ‘독소무’ 5일 섭취후, 99.9% 몸의 변화 직접확인 가능!

정(靑)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 오늘날 정(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의 정(靑)내에는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 건강한 장, 튼튼한 장을 유지할 수 있다. 삼성제약 ‘독소무’ 5일간만 드셔보면 ‘속’ 편안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배변이 쑥!! 까스도 쑥!! 요즘 ‘독소무’ 덕분에 살 났습니다. 흔하디 흔하고, 짙고, 질자면 비고적 건강하다고 말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 불규칙한 식사때문에 설사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요즘 매일먹는 삼성제약 ‘독소무’ 때문일까? 그렇게 더부룩하던 속이 맑아졌어! 후련할 줄이야! ‘독소무’ 먹길 정말 잘했네!

삼성제약 독소무/장(腸)기능성 제품으로 식약청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남·여 공통)

설기름, 가스명수, 유행성심원으로 알려진 삼성제약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만든 ‘독소무’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이눌린, 락티호분소분배미강 등 49종류의 100% 자연천연원료로 인체시험을 통하여 식약청에서 공식 인정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5일만에 끝낸다” 효과 없으면 “환불” 해드립니다.

삼성제약 ‘독소무’는 심어를 기울여 연구개발한 고급제품으로 5일만 드셔보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직접 몸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효과 보장으로 5일간 드셔 보시고 효과가 없거나 불만족시 당일 즉시 100%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 보증서 발급, 약제비 회사 부담)

제품문의 : 1577-2326 (본사)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독소무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고흥)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월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99,000원) 짐수함, 유람선,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출발 “목카투어” 89,000원

- ★ 일정
 -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9시 또는 14:30)출발-호텔1박
 - 2일째: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6:50)출발(단, 일요일은 16:30출발)
- ★ 출발일: 매일 출발
-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1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89,000원

- ★ 일정
 - 1일째: 녹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호텔1박
 - 2일째: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10)출발
- ★ 출발일: 매일 출발(일요일 별도 문의)
- ★ 포함내역: 왕복선박, 숙박2박(4인1실),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한라산 등반 15,000원

광주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 (주중+주중) 179,000원 (주중+주말)

※ 유류 할증료 별도, 승시기간 별도 문의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15,000원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한라산등반 + 2일 제주관광)	2박 3일 목카투어 + 항공투어 129,000(주중) / 149,000(주말)
---------------------------------------	---------------------------------------	---

● 농 · 임 · 정정아 1079-12-183903 **배편,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문의: ☎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협찬 남해고속 시월드고속웨리**
 www.jejumt.net